



성읍마을 연례행사... 초가지붕 집들매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마을 주민들이 4일 초가 지붕 집들매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경찰 인력 이관 규모 놓고 '동상이몽'

자치경찰 77명 요구... 국가경찰 15명 이관 검토 올해 상반기 출범 제주자치경찰위서 본격 논의

제주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부터 어느 정도 인력을 넘겨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4일 제주특별자치경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찰 인력 일부는 제주자치경찰청에 이관(넘겨 주는 것)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법은 국가 경찰 조직을 유지하면서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 등 3개 사무로 나누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경찰 조직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쪼개 전국 각지에 자치

경찰청을 도입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조직은 그대로 둔 채 사무만 분리한 일원화 모델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제주지역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제주지역에는 이미 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경찰단이란 독립된 조직이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경찰 기관이 자치 사무를 맡게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청에 파견됐던 국가 경찰 268명도 지난해 12월 31일을 기해 모두 제주경찰청으로 복귀했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은 이원화 모델을 대비해 국가 경찰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일원화 모델로 법이 통과되며 자치

경찰 인력은 420여명에서 150여명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자치경찰이 국가경찰 인력 이관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경찰도 인력 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상태. 그러나 이관 규모를 놓고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입장이 엇갈린다.

제주자치경찰단은 77명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어린이 통학로 지도와 행복치안센터 운영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적어도 77명을 이관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국가경찰 복귀 후 현재 이들 업무는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인력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파행 운영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제주자치경찰단을 방문했을 당시 유

실물 관리·주취자 응급센터 운영·CC(폐쇄회로)TV 통합관센터 업무에 필요한 인력 등 15명 수준으로 이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전달한 의견은 경찰청 차원의 검토 수준일뿐 구체적인 인력 이관 범위는 자치 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자치경찰위가 인력 이관 규모를 결정하면 제주도는 조례를, 정부는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법으로서(이관 범위) 규정하게 된다"며 "자치경찰위는 이르면 오는 3~4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위는 국가경찰 위와 제주도지사,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7명으로 구성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1일 관광객 1만명 밑으로...

지난 2일 9487명... 약천후 제외 2010년 이후 처음

관광업체 예약률 큰폭 감소

특히 지난 2일에는 제주 관광객이 2010년 이후 태풍 등 기상악화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1만명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6만3928명으로 전년 동기 40만9353명보다 무려 60% 감소했다.

12월 24일 -40.0% ▷25일 -51.4% ▷26일 -71.0% ▷27일 -64.7% ▷28일 -65.1% ▷29일 -66.3% ▷30일 -69.8% ▷31일 -42.5% ▷1월 1일 -58.3%

▷2일 -75.7% ▷3일 -65.2% 이다.

특히 지난 2일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9487명으로, 2010년 이후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된 것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1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같은 제주 방문 관광객 감소는 제주 관광업체 예약률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내 렌터카 예약률은 전년 동기 대비 40%p 떨어진 30%를 기록했으며 호텔 예약률도 19%, 콘도미니엄 23%, 전세버스 2% 등 전년과 비교해 예약률이 크게 떨어졌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며 "연휴도 끝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있어 도내 관광업계 예약률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4인가구 142만→146만원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정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존 4인가구 기준 14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81% 상향 조정됐다. 자동차재산 기준도 차량 가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내년 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현재 서귀포지역에서는 총 3800여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귀포지역 생계급여 수급자는 5~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급 가능성이 높은 주거·교육급여 등 개별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중심으로 급여신청을 안내하는 한편 마을회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영홍기자

제주외고 100명 모집에 103명 지원

지난해 미달 사태를 겪었던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올해는 입학 정원을 가깝스로 채웠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외고는 올해 신입생 100명(일반정원 80명·사회통합전형 20명)을 뽑는데 103명이 지원해 1.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정원의 전공별 경쟁률은 스페인어과가 20명 모집에

26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영어과(3명 초과), 중국어과(1명 미달), 일본어과(6명 미달) 순이다.

제주외고는 2018년까지 높은 경쟁률을 보이다 2019년 11월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 전국의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뒤 첫 미달 사태를 맞았다. 2017년 1,96대 1,

2018년 1.46대 1, 2019년 1.21대 1에서 2019년 0.94대 1로 경쟁률이 추락한 것이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아직 답보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화위원회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과 관련 '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및 이전 재배치' 또는 '현재의 위치에서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등 두 가지 안을 갖고 공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강신정 전 도의회의장 별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왔던 강신정(사진)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별세했다. 향년 82세.

강 전 의장은 제5·6대 제주도의원을 역임했으며, 제6대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강 전 의장은 1995년 제5대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역사회에 환원



하겠다는 약속을 매년 지켜왔다. 도의원을 그만둔 후에도 주민센터에 쌀을 기탁하는 등 그의 나눔실천은 계속됐다.

고인의 빈소는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6일이다. 장지는 제주시 아흔아홉골 선영이다.

김현석기자

희망찬 2021년을 기대하며 생명을 살리는 약속에 함께해요!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약속에 함께해주세요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나눔으로 장기이식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찬 내일을 열어주세요.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전국민의 3%, 매일 7.5명의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1분이면 가능한 모바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인터넷 검색창에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본인인증 후 절차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다.

등록하기

등록하기를 클릭한다.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장기기증 등록하기를 클릭한다.

등록시 작성한 주소지로 등록증이 발송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등록하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기 온라인 등록이 어렵다면 1588-1589로 전화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우편으로 요청하세요!

